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진실의 힘, 2016

정진임*

글쓴이의 말마따나 “책을 읽는 동안 덮어버리고, 집어던지고,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수시로 찾아” 왔다. 700쪽에 가까운 책을 읽는 동안 차마 더 읽어내려갈 수가 없어서 덮어두고, 치워뒀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누구라도 이 책을 집어 읽어 내려가다 보면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적어 내려간 이들의 마음이 더욱 애달프고, 소중하다.

산산조각 난 채 온갖 잡동사니 속에 뒤섞여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닦아내고 맞춰나갔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록 앞에서 절망하고,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을 쏟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끊임없이 닥쳐왔지만 세월호에서 승객을 내버리고 도주한 사람들처럼은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견뎌냈습니다.

—후기. 644쪽

집어던지고,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눌러가며 세월호 기록의 조각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들을 10개월 동안 풀어낸 이 작업은 박종대씨 로부터 시작된다. 박종대씨는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올랐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종대씨는 기록에 몰두했다. 각종 재판자료와 경찰의 수사기록, 청문회 속기록과 내부조사 녹취록을 모았고 세월호 관련 재판과 청문회에 참석해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하는 말들을 빠짐없이 노트에 휘갈겨 적었다. 그것으로는 부족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모았다.¹⁾ 그렇게 박종대씨는 아들 수현군의 방을 빼곡이 채우고도 남는 15만장의 자료와 3테라바이트의 기록 속에서 생때같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원인을 찾았다. 다니던 직장도 휴직을 하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록을 읽는 일에 몰두했다. 여기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 1년 넘게 세월호 사건을 취재해 온 한겨레21의 정은주 기자, 취업준비생 박다영씨, 대학원생 벽현진씨, 박수빈 변호사가 결합했다. 그렇게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 후 ‘세월호 기록팀’이 만들어졌다.

세월호 기록팀은 독자적인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금 있는 기록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모든 기록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서술했다. 700쪽의 책 어디에서도 과적을 한 세월호와 청해진 해운과 구조를 하지 못한 해경, 구조보다는 보고용 영상에 집착했던 청와대에 대한 감정적인 목소리가 없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써 내려갈 뿐이다.

4층 좌현 갑판에 물이 덮치지 직전, 바다로 뛰어든 학생들은 다
행히 배에서 빠져나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던
구○○(17,생존)학생은 10미터 가량 떨어져있는 해경 구명보트를

1) 시사인, 10달 동안 분석한 ‘그날의 기록’, 2016.04.15

발견했다. 수용을 못하는 안○○(17,생존)학생의 손을 꼭 잡고 헤엄쳤다. 구○○ 학생은 탈출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힘은 부치고 바닷물은 찼다.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바닷물에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겨우 구명보트에 도착했다 두 학생을 끌어올리던 해경이 말했다.

“존나 늦게 올라오네, 씨발. 이 새끼 존나 무거워”
“죄송해요”

구○○ 학생은 달리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구명보트에 타서도 학생들은 진정하지 못했다. 김○○(17,생존) 학생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무서워 노란색 펜더가 달린 로프에 몸을 감았다. 해경이 다시 말했다.

“그거 빨리 내려, 개새끼야”
“안돼요. 죽을 것 같아요”

해경의 욕설은 계속됐다. 결국 김○○ 학생은 몸에 꼭 감고 있던 펜더 밧줄을 풀어야 했다. 어디 다치진 않았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묻는 해경은 없었다.

-1부 그날, 101분의 기록, 159쪽

작업팀의 최대한 객관적이고자 하는 태도는 목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은 총 5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그날, 101분의 기록 ▲2부 왜 못구했나 ▲3부 왜 침몰했나 ▲4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 어떻게 태어났나 ▲5부 구할 수 있었다. 박종대씨는 이 책 중 딱 한 가지가 아쉽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2부의 제목 “왜 못구했나”이다. 당연히 구해야 했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한 것이 분명하지만, 제목은 그리 달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 내부에서의 많은 논의 끝에 일부러 그리 결정한 것일 거라 감히 그 마음을 추측해 볼 뿐이다.

이 책의 1부 그날, 101분의 기록 에서는 각종 기록을 토대로 2014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특히 세월호 급변침이 발생한 4월 16일 오전 8시 49분부터 배가 침몰한 오전 10시 30분까지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카카오톡과 동영상으로 기록을 남긴 희생자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날을 되새겨준 생존자들의 증언, 진도VTS 녹취록과 수사기록들이 상황별로 시간 순서로 재구성 되어 있다.

2부 왜 못구했나 에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은 떠넘기는 정부의 구조 실패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구조보다는 대통령에게 보낼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데 급급했던 정부의 민낯도 드러낸다. 특히 해경지휘부가 구조세력과 교신하는 주요 수단인 TRS 녹취록의 허위작성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기록팀은 “TRS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이 해경 지휘부와 교신한 기록으로 구조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자료이지만 해경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들은 엉터리였다”고 이야기 한다. 녹취록이라 함은 녹음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것이지만, 해당 녹취록은 서로 다른 5가지로 존재하고, 중요 기록이 이렇게 삭제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검증한 곳은 한곳도 없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123정 기관장 최완식은 당시 접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고 선미에 접안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문제였다. 구명보트에서 구조한 승객을

빨리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도록, 세월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123정이 되도록 세월호에서 멀찍이 떨어지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123정이 가까이 있으면 같이 침몰하게 되니까 배를 뺐다”는 의경 박○○의 진술이다.

-2부 왜 못구했나. 303쪽

3부 왜 침몰했나는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기준 완화, 상습과적, 평형수 축소, 부실 고박 등의 문제와 사고 당일 급격한 우회전을 설명한다. 수년 전부터 침몰이 예견되었다 할 정도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세월호는 참사 당일에도 이미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었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출항계획이 짙은 안개 때문에 발에 묶였던 세월호가 무리해서라도 출항하려고 한 이유는 그날따라 많이 실었던 화물 때문이기도 했다. 세월호는 한차례 운항할 때 마다 6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그날은 화물운임만 6200만원(세월호 평균 화물운임 5천만 원)을 웃돌았으니 청해진해운 측에서는 놓치지 아까운 기회였을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한국선급이 승인한 최대 화물적재량(1077톤)보다 두 배 넘게 과적했을 때, 화물 매출액이 6270만 원이었다. 인천~제주 항로를 한차례 왕복할 때마다 보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가 났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운항으로 본 적자는 2013년에만 40억 원을 웃돌았다. 해무이사 안기현은 “사고가 안 났다고 하더라도 청해진해운은 울여름을 못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부 왜 침몰했나. 378쪽

4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 어떻게 태어났다. 에서는 편법으로 세월호를 도입한 내용과 해피아 로 대변되는 형식적인 해운안전 관리에 대해 서술한다. 허울에 그치는 시험운항과 운항관리규정, 규정과 원칙은 없고 관행만 존재하는 관리감독 체계, 그리고 그 돈의 논리가 작용되는 기업과 정부. 세월호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어디에 적용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이 민관유착과 낙하산의 집약체를 낱낱이 적어내려간다. 그리고 4부에서는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서술한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증개축과 운항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종 문서들과 녹취록,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들어가며 국정원과 세월호 간의 의혹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책의 마지막은 5부 구할 수 있었다.를 두고 기록팀은 “이 책의 결론이자 가장 가슴 아픈 대목” 이라 말한다. 구조할 시간도, 구조할 인원도 있었지만 구조할 계획과 책임자가 없어 결국 당일 304명의 사망자를 내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게도 당연한 이야기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과 선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경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 곳에 설명되어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선장 및 선원과 해경 책임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염병, 해경이 다 뭘 소용이여. 눈앞에서 사람이 가라앉는다. 일단 막 갖다 대서 살리고 보는 게 이상적이제. 해경 지시 들었다가는 갯들 다 죽었어. 안 그렇소?”

20명의 승객을 구해낸 태선호 김준석 선장의 말이다.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한 어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해경의 소극적인 태도였다. 승객을 탈출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경이 단 한 명이라도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방송만 했어도, 그 소리가 ‘야 나오란다’ 이렇게 전달돼 다 나왔을 거여”

세월호에 달라붙어 승객을 구하다가 뱃머리가 세월호 후미 난간에 걸려 함께 빨려들어갈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며 25명의 목숨을 살린 피시헌터호 김현호 선장은 통탄했다.

-5부 구할 수 있었다. 628-629쪽

출항하지 않았어도 될,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할 수 있었던, 단순 사고로 그칠 수 있었던 세월호참사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여전히 실종 중이다. 생존자들이라고 무사한 것은 아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끝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구했던 화물기사 김동수씨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민간잠수사 김관홍씨는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월호참사 2주기 다음날인 2016년 4월 17일 목숨을 달리했다. 유가족들은 2년을 하루같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동거차도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기록팀은 이 기록들을 정리하는 동안 수없이 찾아왔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단 한사람을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한다. 일가족 중 홀로 구조된 권○○양이다. 승객들의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권양이 세월호의 아이들과 같은 나이게 되는 10년 후에 이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양에게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기록팀은 책을 써내려 갔다.

권양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의 결과다. 구명조끼를

아이에게 먼저 입히고, 무서워 울고 있는 아이를 다독이고, 본인보다 아이가 더 먼저 구조되도록 위로 올려보낸 평범한 아이들의 마음이다.

뺏속이 아린 이 기록을 읽고 난 후 이 평범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새긴다. 유가족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는 마음. 생존자들이 여전히 두렵고 아프지 않도록 다독이는 마음. 애끓는 외침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마음. 더 많은 평범한 마음들이 끝끝내 밝혀낼 진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다섯 살 권○○양은 4층 키즈룸에서 오빠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배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울고 있는 ‘애기’를 본 단원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는 킁킁한 배 안에서 자기들도 무서워 울면서 권양을 보듬었습니다. “울지마, 괜찮아.” 야가를 잃고 애타할 부모를 찾아주려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애기, 여깁어요.”

10시 19분, 뒤집어지는 세월호 우현 난간에서 승객 10여 명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애기요, 애기!”

밖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학생들과 승객들이 손을 모아 난간 밖으로 애기를 밀어 올려 보낸 것입니다. 권 양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후기. 643-644쪽